

## 전력사업 120주년 특집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기불이 밝혀진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면 1887년으로, 120년의 세월동안 한결같이 전기는 우리의 곁에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지 120주년이 되는 올해에 그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력사업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봅니다.

〈편집자 주〉

주제 1: 근대문명의 시작 <고종황제, 첫 전등불을 밝히다>

주제 2: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 <전기 120년,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주제 3: 우리나라 전력사업 위상 <세계적인 전력산업으로 성장>

주제 4: 우리나라 전력사업 과제와 전망 <한국형 모델로 에너지위기를 넘는다>

고흥원 | 한국전력공사 문화홍보실 홍보기획팀장  
(khwll@kepco.co.kr)

### 주제 1: 근대문명의 시작 <고종황제, 첫 전등불을 밝히다>

이 땅에 밝혀진 최초의 문명의 빛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올해는 1887년에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된 이후 꼭 120년이 되는 해이다. 개화의 분위기를 타고 전기가 도입되던 초기의 전력사를 추려본다.

## 개화의 바람을 타고 온 문명의 빛

1887년 최초의 전등, 건청궁을 밝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0년 전인 1887년 3월 6일 저녁, 어스름이 짙게 깔린 경복궁 내 건청궁.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깜빡하는가 싶더니 처음 보는 눈부신 조명이 갑자기 주위를 밝혔다. ‘와!~’ 주위에 모여든 남녀노소들이 모두 감탄사를 터뜨렸다.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로 전등이 점화된 것이다.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견한지 고작 7년 5개월 만에 이 땅에 도입된 문명의 빛은 그렇게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첫 점등 당시 건청궁을 밝힌 경이로운 빛에 감탄사를 연발하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그 작은 불빛이 이 땅에 문명의 세기를 앞당기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처음 점등되었던 당시의 상황은 경복궁에 오래 근무했던 安尙宮이 1936년 안겸(岸謙:당시 京電監理課長, 燈火史研究家)과 나눈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원정의 취향교와 우물 사이의 중간 연못가에 양식건물이 세워지고 건물 안에는 여러가지 기계가 설치되었다. 그 공사는 서양인이 감독하였다. 궁내의 큰 마루와 뜰에 등롱(燈籠) 같은 것이 설치되어 서양인에 의하여 기계가 움직이자..(중략).. 등롱에는 백주(白晝)보다 더 밝은 휘황한 불빛이 들어왔다. 밖의 궁궐에 있는 궁인들이 이 전등을 구경하기 위하여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는 내전(內殿) 안으로 몰려들었다.” 여기서 내전이라 함은 고종이 머물던 건청궁과 민비의 침소인 곤녕각을 뜻한다. 고종 내외의 침실과 마루에 각각 한개의 백열등을 가설하고 건청궁 뜰에는 다시 한개의 아크등을 가설, 점등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때만 해도 전기는 문명의 총아라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전등가설에 엄청난게 큰 돈이 들었다. 궁궐에서 가장 먼저 전깃불이 켜진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개화의 흐름이 채 성숙되기도 전, 당시 첨단 문명이랄 수도 있는 전등을 들여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 답은 우리나라 근대사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882년 5월 22일 미국과 수교(朝美修好通常條約)를 맺게 된 조선 정부에서는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보빙사(報聘使)라는 시찰단을 미국에 파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화의 물살을 탄다. 보빙사의 미국 파견은 두나라 과학기술교류의 발단이 됨과 동시에 한반도에 전기문명을 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보빙사 일행은 미국을 시찰하는 동안 여러 가지 선진문명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당시는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전구가 막 실용화되기 시작한 때로 전등시설과 발전원리를

둘러본 일행은 깊은 감명을 받아 그에 대한 소감을 기록으로 남기며 이와 같은 생활을 조선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이 같은 보빙사 일행의 미국 시찰 후의 적극적인 건의와 초대 주한미국공사인 푸트(Lucius H. Foot)의 주선으로 조선 정부에서는 에디슨전기회사에 우리나라의 첫 전기공사를 의뢰하게 됨으로써 발명왕 에

디슨과 인연을 맺게 된다.

당시 향원정 연못가에 세워진 발전설비는 동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16축광 백열등 750개를 점등할 수 있는 규모였다. 알렌의 <조선전기문제보고서>나 에디슨전기회사의 총지배인인 업튼의 편지에 의하면 당시, 이 사업은 중국의 자금성이나 일본 궁성보다 2년이나 앞선 선진 플랜트사업으로 꼽혔다고 하는데 건청궁에 자리한 첨단 문명의 이기(利器)를 보기 위해 영국의 전등교습생들의 방문이 줄을 잇기도 했다고 전한다. 경복궁 건청궁의 향원정 연못물을 먹고 켜진 불은 건청궁 처마 밑을 별경계 커졌다고 해서 '물불'이라 이름 지어졌고 그것은 묘한 불이라는 뜻으로 '묘화(妙火)'라고도 불렸는데 잘못 와전되어 모화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 지금 같으면 삼척 동자라도 다 알만한 전기를 그 당시엔 아무도 그것을 전등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괴물처럼 무섭고도 신기한 불로 생각해 그저 '不可思議'한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더 재미있는 것은 고장이 잦아 전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며 한번 고장이 날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 마치 건달과 비슷하다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건달불(乾達化)'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발전기 가동으로 연못 수온이 상승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자, 물고기를 끓인다는 뜻의 '증어(蒸魚)라 부르며 망국의 징조라고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 고종 황제의 전기 사랑, 황실소유 한성전기회사 세워

1898년, 민족기업의 자부심으로 최초의 전기사업을 시작하다

처음 건청궁의 불 이후 전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고종은 황실의 전등을 밝히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궁내뿐 아니라 조정과 백관들의 집, 나아가 일반 민가 백성들까지도 고루 문명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생각을 종종 피력하였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도 했다고 한다. 실제로 왕실에서 전기회사를 운영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거나 황실에서 전기회사를 만들어 골고루 베풀 수 없을까 고민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등의 우수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문호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던 유생들은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고종 25년 <매천야록>에서는 전등하나를 켜는데 엽전 천 껌이나 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과장된 기록을 남기고 있어 당시의 그러한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고종황제가 이토록 전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전기사업을 통해 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기고 전기사업의 시공권과 운영권을 미국에 줌으로써 청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모두 밤을 틈타서 일어난 것을 두려워해 밤마다 궐내에 전등을 환하게 켜두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한다. 전기에 대한 고종황제의 각별한 관심은 1898년 한성전기회사(漢城電氣會社)로 집약된다. 한성전기회사의 설립은 당시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서 날카롭게 대립한 가운데 극비리에 추진되었는데 1898년 1월 18일, 고종황제의 단독 투자로 서울 시내 전등, 전차, 전화사업 운영권을 허가받아 마침내

순수 민족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황실에서 출자한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된 한성전기회사는 오늘날 한국전력공사의 모태가 된다. 경북공에서의 첫 시등(始燈)이 조그마한 자기발전설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한성전기회사의 사업은 중앙의 발전에서 배전설비를 이용해 일반가정과 사무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본격적인 전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전차사업으로 시작된 초기 전력사업

1899년, 전차사업 우리나라 대중교통 혁명을 일으키다

서울의 교통수단이 인력거와 자전거 정도였던 때 등장한 전차는 가히 대중교통의 혁명이라 불릴만한 사건이었다. 1899년 5월 20일부터 시민들의 탑승이 시작되었는데 차비는 엽전 5전이었고 정거장이 따로 없는, 어디서든 편리한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요즘의 택시와도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전차가 운행되던 날은 정부의 고관을 초대하는 한편 시민들이 전차에 몰려들 것에 대비해 병정 300명과 순검 250명까지 동원하여 질서를 지키려 했으나, 막상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전차를 보러온 장안의 남녀노소가 모두 전차를 따라 동서로 정신없이 몰려 들어 동원된 군대와 경찰이 진땀을 뺐다고 황성신문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전차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올라 그것을 타보기 위해 경향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전차를 타려는 사람들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뤄 쉽게 탈 수가 없었으며 한번 탄 사람은 동대문과 서대문 사이를 왕래하며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차를 타기위해 재산을 탕진한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당시의 전차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잘 전하고 있다. 1899년 9월 1일 평균 승차인원은 약 2,170명, 평균수입은 약92원이었다고 한다. 한성전기회사가 이렇듯 전차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은 당시 한성의 인구는 약 21만 명으로 이들의 발이 될 대중교통수단은 높은 채산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고종이 자주 들르는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 행차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1899년 5월 4일은 전차가 처음으로 동대문과 홍화문(지금의 서대문) 구간을 시험 운행하게 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된다. 보통 객차 1대와 황실전용 전차 1대를 조립해 운영한 전차는 처음 서대문에서 동대문 사이를 오가다 점차 사업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점차 운행 구간과 운행시간을 확장하게 된다. 이처럼 전차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장안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한 반면, 을미사변으로 시해된 명성황후가 묻힌 홍릉을 자주 찾았던 고종황제는 '황실전용전차'를 꼭 상여처럼 생겼다 해서 잘 이용하지 않았다는 에피소드가 전해 오기도 한다.

### 최초의 민간전등은 종로네거리

1900년, 종로네거리를 밝힌 민간 전등 '전기의 날' 로 기념

전차사업의 개시와 더불어 한성전기회사는 본격적인 전등사업에도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다. 동대문발전소에 200kW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차와 전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낮에만 운행하던 전차를 야간에 운행하기 위해 1900년 4월 10일 종로네거리 정거장과 매표소 주변에 3개의 가로등을 켜게 되는데 이는, 단군 이래 처음 등장한 길거리 조명용 전등인 썸이다. 비록 현대적 의미의 가로등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수천 년 동안 해만 지면 길거리가 캄캄해지는 게 상식이었던 이 땅에서, 민간 점등의 시대를 예고한 참으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민간사회에 켜진 최초의 전기점등으로 기록된 이날을 기념하여 지금도 해마다 4월 10일을 '전기의 날' 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1901년이 되면 전등 보급은 더욱 확대되기 시작한다. 동대문 발전소를 증설하여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을 비롯하여 외국공관이 모여 있는 정동과 일본인 상가가 있는 진고개(지금의 충무로), 그리고 남대문과 서대문지역으로 전등보급을 확산하게 된다. 당시 진고개에는 일본인 상가가 밀집해 있었는데, 이곳에 민간조명용 전등 600개를 보급했을 때는 정부의 고관대작과 외국사절은 물론 상인을 비롯한 수많은 구경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점등식을 치러 서울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전하기도 한다. 좁은 진고개 골목과 초가집들 사이로 키 큰 나무처럼 빼죽 솟아오른 전주의 모습은 구시대와 신문명이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이 때 밝혀진 민간등은 대부분 10축광짜리였는데 한달요금이 1원 60전으로 쌀 세 말과 거의 맞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는 관공서나 은행, 회사 상점 또는 상류가정 등으로 제한될 만큼 사치품이었다.

일본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당시에는 전등이 덩달아 수난을 받았다는 재미있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건달불을 켜 집은 친일파라 해서 지나다니는 아이들까지도 돌을 던지곤 했다고 한다. 또 의병들은 전등이나 전선을 발견하면 반드시 잘라오도록 하명을 받았다 하는데 전등을 자르는 것을 배일의 한 방법으로 생각했던 때문이다. 게다가 전등은 대국의 것이 아니라 오랑캐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놀란다고 해서 전등 아래서는 제사를 절대 모시지 않았다고도 한다. 한편, 전기가 민간 보급되기 시작하고 몇 달 동안은 거의 매일 여러 집에서 정전이 발생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정전의 원인이 한결같이 두꺼비집의 퓨즈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전깃불을 처음 접한 노인들이 담배를 피우려고 담뱃대 꼭지를 전구(電球)에 대어 불을 붙이려고 해도 잘 붙지 않자 전구를 빼어 소켓 속에 담배꼭지를 꽂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의 고등기>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을 계몽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고 전한다.

## 열강의 이권침탈에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스러져간 민족기업의 운명

시대의 부침, 초기 전력사에 그대로 녹아 투영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회사였던 한성전기회사는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민족기업이자 초기 전력사업의 토대를 마련한 전력사의 시원(始原)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뜻 깊은 설립 목적과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무리한 확장과 이권침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열강들의 틈새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곧 버틸 힘을 잃고 만다. 전차사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왕실재정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채무관계가 기한 내에 원만히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한때 한미간 심각한 외교 분쟁으로까지 발전하였으나, 러일전쟁(露日戰爭)이 일어나 미국의 힘을 기대했던 고종황제가 한발 물러서 미국인의 합작회사인 한미전기회사로 그 체제를 바꿈으로써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기회를 노리다 주한 미국 공관이 철수하고 콜브란이 전기사업에 흥미를 잃자 일한(日韓)가스주식회사를 내세워 1909년에 한미전기(韓美電氣)를 인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력사업은 뿌리를 채 내리기도 전에 부채의 누증과 부실운영으로 재산과 이권을 미국인에게 빼앗겼으며, 이어 다시 일본으로 넘기게 되는 비운을 맛보게 되었다.



- 1985년 입사
- 1992~2001 인사처 인사제도부, 교육훈련부, 인력개발부 부장대리
- 2003~2005 대구사업본부, 경남사업본부 영업부장
- 2006 인천사업본부 기획관리실장, 전략경영실장 근무
- 2007~ 현재 문화홍보실 홍보기획팀장